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
		배포일자	2021년 5월 7일(금) 총 3매	
담당 부서	대변인실	담당자	• 공보지원협력관 신상학 ☎440-3318	
	정책기획관실	담당자	• 기획담당 양상훈 ☎440-2131 • 담당자 황선조 ☎440-2135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박남춘 시장 “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” 정책 강화
- 5월 실국장회의에서 ‘스쿨존 안전강화’ 와 ‘아동학대 근절’ 강력 추진의지 표명-
- 「K-바이오 랩 센트럴」 인천에 유치되어야 우리나라 백신주권 확보 가능-

■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시를 “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”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‘스쿨존 안전강화’와 ‘아동학대 근절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
○ 박 시장은 7일 ‘5월 실·국장회의(비대면 영상회의)’를 주재한 자리에서 “가정의 달인 만큼 이번 달에는 우리 시가 ‘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’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”면서 “남은 민선 7기 기간 동안 ▲스쿨존 안전강화와 ▲아동학대근절, 이 두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”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.

■ 인천시는 지난 달 시장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(시, 경찰청, 교육청 등) 합동으로 마련한 ‘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’을 3일 발표한 바 있다.

○ 동 대책은 지난 한 달간 인천시 264곳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 연 인원 884명이 참여한 전수조사와 교사, 학부모, 전문가 등의 건의와 의견을 들어 마련되었다.

○ 강화대책에서는 ▲과속·신호위반 CCTV(233대)와 불법 주정차 CCTV의 추가 설치(114대) ▲교통흐름 등을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던 18곳의 제한속도의 30km/h 하향조정, ▲학교 주변 노상주차장 폐지 및 공영주차장 확대, ▲전 학교 1개 이상의 옐로카펫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○ 박시장은 “어른들의 차량 운행과 주차편의 등이 우선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보호구역 정책들을 과감히 실시해 나가겠다”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.

■ 박시장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“서구 선진국과 같이 모든 지역 사회의 일원이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 신고에 참여하고, 신고를 받은 기관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필요조치를 하는 민관이 협력하는 문화와 체계를 조속히 만들어 가야한다”고 당부하였다.

○ 또한, 지난달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중인 ‘아동학대 대응 자문단’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대책과는 차별화된 인천시의 강력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.

○ 박시장은 5월 17일 출범하는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인천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“어린이 안전강화”를 최우선 목표로 활동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.

■ 한편, 중기부의 공모 절차 발표가 임박한 「K-바이오 랩센트럴」과 관련하여 박시장은 “정부가 기계적 균형발전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백신주권 확보 등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
○ 「K-바이오 랩센트럴」은 바이오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고가의 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,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네트워킹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국 보스톤의 기업 육성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사업이다.

- 박 시장은 “단일도시에서 기술개발부터 임상, 생산까지 모두 가능한 국내 유일의 도시” 라며 “바이오 관련 산·학·연·병이 집적된 미국 보스턴에서 랩센트럴이 성공한 것과 같이, 국내에서는 우리 인천에서만 랩 센트럴의 성공보장이 가능하다” 고 말했다.
- 이와 함께 “대한민국의 감염병 백신 주권 확보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천에 집중 투자해야 가능할 것” 이라면서 “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다” 고 강조하였다.
- 그 외에도 박 시장은 “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백령공항 예타 대상 선정 등 대형 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” 이라면서,
 - “우리 시민들의 바람과 염원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市 전체의 역량을 집결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” 고 강조했다.
 - 박 시장은 “저 역시 지난 달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있다” 면서 “최종발표 시까지 최선을 다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